신안군 '청년 어선 임대' 효과 봤다

2019년 전국 첫 임대사업 시행
청년 귀어 늘고 22억 소득 효과

신안군이 청년 귀어인에 배를 빌려주는 '청년이 돌아오는 어선 임대사업'이 인기다. 천사 11호. 〈신안군 제공〉

신안군의 어선 임대사업이 효과를 보고 있다. 섬 마을에 청년 등 유입 인구가 늘어나고 소득도 쑥쑥 올라가고 있다.

신안군은 귀어를 결심한 청년들에게 어선을 임대해 주는 '청년이 돌아오는 어선 임대사업'을 올해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군이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어업에 종사하고 싶어도 여건상 어려운 청년 어업인에게 어업 기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올해에도 5억원의 군비를 추가로 확보했으며 215명의 어업인이 118척의 어선을 신청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밝혔다.

사업은 군이 구입한 어선과 어구를 어업인에게 임대 해주고 사업비(원금)와 연간 사업비에 대한 0.5% 수준의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임대료의 원금상환이 완료될 경우 어선의 소유권은 어업인에게 이전된다.

군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군비 32억원을 투입해 총 11척(흑산 4, 비금 2, 하의 2, 증도·도초·안좌 각 1척)의 어선을 임대해 주고 있으며 현재 총 22억원의 소득을 올릴 만큼 효과를 보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청년들이 천사섬 신안으로 돌아와 일자리를 갖고 소득을 올려 모두가 잘사는 신안건설이 목표이며, 천사 11호에 이어 천사 100호, 천사 200호까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어업인들과 귀어를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비교 불가' 완도산 애플망고 본격 출하

완숙시켜 수확해 맛·향 뛰어나…3kg 10만원 거래

완도군이 기후 변화에 대응해 신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는 아열대 과수 애플망고〈사진〉가 본격 출하되고 있다.

완도군에 따르면 2018년 '아열대 과수 재배 기반 조성 사업'으로 3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군외면 신학리 일원에 하우스를 신축하고 애플망고 재배를 시작했다.

현재 약 900평에 애플망고 300주를 재배하고 있으며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약 3t을 수확할 예정이다.

자연 상태에서 완숙시켜 수확한 완도산 애플망고는 덜 익은 것을 수확해 운송 과정 중 숙성되는 수입 망고와는 맛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고 완도군은 전했다.

완도산 애플망고는 당도는 평균 18브릭스(Brix), 최고 20브릭스로 인기가 높다.

현재 망고 7~10개들이 3kg 한 상자에 1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복선 완도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 애플망고 재배 농가를 확대하고,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영광군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21일~내달 29일 신청

영광군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은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확인,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가 대상이며 '영광사랑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이다.

대상 가구의 가구주는 21일부터 7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1인 가구 30만원부터 급여자격과 가구원수에 따라 1회 차등 금액이 충전 지급되고 7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와 동일한 금액이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모두가 생활이 어렵지만 저소득층이 더욱 힘든 시기이므로 이번에 지급하는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이 저소득층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상가 리모델링 지원 사업

영암군, 20일까지 신청자 모집

영암군이 영암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지역 내 상생협약(임대료 상승률 제한)을 체결한 상가에 대해 '상가리모델링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상가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지난 2020년 11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영암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상가 내·외부 정비를 통해 상가 경관을 개선하고 임대인·임차인 상생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상가당 리모델링비용의 20%까지(상가당 최대 3200만원) 지원 받을 수 있다.

자부담은 80%이고 상가 경관 개선(옥상·외벽·창호 등) 및 내부 보수를 지원해 준다.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영암군 도시재생지원센터(영암읍 열무정로 14, 061-472-8181)에서 참여희망자 상담 및 접수를 받으며 자세한 지원기준과 절차, 구비서류 등은 영암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또는 영암군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현장조사, 신청서류 검토 및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7월 최종 선정 및 통보해 8월 시공자와 신청자가 계약을 체결, 9월부터 본격적으로 상가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상가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읍내 상가와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고 올해 사업을 완료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무더운 여름, 해남 해수욕장으로 떠나요

송호 내달 8일·사구미 22일 개장

해남군은 다음달 8일 송호해수욕장〈사진〉, 22일 사구미 해수욕장을 개장한다고 밝혔다.

해수욕장 입수 가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 군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피서객들이 대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장 전 대대적인 시설물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많은 인파가 몰리는 송호해수욕장에는 백사장 내 나무그네와 야간조명 등 포토존을 조성하고,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송호해변 여름축제를 개최한다.

축제에서는 해변 콘서트를 비롯해 문화공연과 체험 등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땅끝마을 송호리에 위치한 송호해수욕장은 울창한 해송림과 고운 모래가 길게 펼쳐진 아름다운 해변으로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찾는 해남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이 중지됐던 사구미 해수욕장도 3년만에 개장한다. 땅끝 마을에서 남창간 해안도로를 타고 가다보면 만나게 되는 사구미 해수욕장은 고운 모래가 특징으로 개매기 체험 등 어촌체험마을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2022년 해남군 해수욕장협의회를 개최, 해수욕장 개장 기간을 확정하고, 시설물 확충 등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착한 가격, 건전한 소비' 목포시 물가안정 캠페인

지난 10일 목포 북항회센터 일원에서 열린 물가안정 캠페인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목포시 제공〉

목포시가 지난 10일 목포 북항회센터 일원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공직자와 전남·목포 소비자연맹 회원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착한 가격! 건전한 소비!' 라는 구호로 열린 이번 캠페인은 최근 물가상승률이 5%를 기록하는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어깨띠와 피켓 등을 메고 물가안정을 위한 사업자와 소비자의 적극적 동참을 요청하는 홍보물을 배부했다.

홍보물은 ▲상품가격의 과도한 인상 자제하기 ▲가격·원산지표시 이행하기 ▲소비자의 건전 소비활동 하기 ▲지역 상품 및 재래시장 이용하기 ▲착한가격업소 이용하기 등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